



### ·아·기·

병기 과학도 최무선. 그는 고려 충숙왕 13년(서기 1326년)에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최동순은 광흥창사(백관의 봉급을 관리하는 관청의 으뜸 벼슬)를 지낸 사람이었다고 한다.

무선은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 유년시절부터 동네 아이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불교와 유교에 관련된 책을 밤을 세워가며 열심히 외는 한편, 방서도 가리지 않고 읽었다. 방서란 당시만해도 출세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책이었다. 그러나 무선은 방서라고 불리는 선술이나 의술, 점술 등의 책들을 닦치는 대로 섭렵하였다. 또한 무선은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중국어 공부도 틈틈히 하였다. 어린 무선의 생각에 중국의 앞서가는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마침내 무선은 다른 소년들과 달리 군사와 병기쪽으로 관심을 굳히고서는 그 방면의 공부를 더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무선은 병기의 제조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군기감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군기감에서 일하면서 무선은 나라의 현실을 좀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왜구들의 노략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똑똑히 살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선은 그때부터 왜구를 물리칠 수 있는 병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정 찬 주  
(소설가)

# 최무선



왜구란 일본인 도적을 말하는데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혼란해질 때마다 나타나 노략질을 일삼곤 하였다. 그러니까 왜구들의 노략질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인데 임진왜란이나 오늘날의 경제적인 침투 등도 왜구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본인 도적들은 적개는 몇 사람씩, 많개는 몇 십명씩 무리지어 서남해안에 출몰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다.

조정에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소용없었다. 공민왕 15년에 사신으로 김 일음, 우왕 2년에 나홍수를, 또다시 안길삼과 정몽주를 일본에 보냈지

만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일본은 “왜구들의 난동을 방지할 만한 힘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보내올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일본인 도적들의 난동은 더 심해갔다. 우리 어민과 농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잡아가고,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여 혼을 내주면 불을 지르며 달아나기도 하였다.

어느새 왜구들은 해안 지방은 물론이고 조정이 있는 개성 부근, 강화와 풍덕지방까지 쳐들어왔다. 이제는 서남해안은 물론이고 개성 사람들까지도 왜구들의 약탈과 난동에 대비해서 방어책을 세워야 하였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수도를 옮기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 육전에서의 방어책

무선은 어느 날 무릎을 치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육지에서 놈들을 격퇴한다는 것은 많은 병사와 장비가 필요해. 놈들이 물에 오르기 전에 박살내야 해.”

무선의 방책은 옳았다. 당시만 해도 조정에서는 해전에 관심이 있는 정 지장군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육전에 대한 방책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왜구의 무리가 같은 뱃길로 들어왔다가 저 회돌끼리 크고 적게 무리지어 날뛰므로 해상에서 뿌리뽑아 버리는 전술이 필요했다.

무선은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생각하였다.

“그래, 화약의 힘을 이용하면 불을 붙인 화살이 훨씬 멀리 날아갈 거야. 아주 먼거리에서도 놈들의

배를 태울 수 있을거야.”

손으로 화살을 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왜구들에게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위력적인 병기가 될 것이었다. 요즘의 병기로 치자면 미사일 정도의 최신예 무기였다. 그때까지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니 중국인들이 화약의 제조법을 가르쳐줄 리 없었다. 문익점이 목화 씨앗을 몰래 가져오느라 목숨을 걸고 산업스파이 노릇을 한 것만 보아도 그들이 기술을 알려줄 리 만무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화약 제조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무선의 애국적인 과학정신은 더욱 돋보이고 값진 것이다.

무선은 화약제조법 연구에 골몰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이 염초를 얻어내는 방법이었다. 오래된 먼지 속에서 얻어낸다고 하는데 막연하기만 하였다. 그래도 무선은 먼지를 모아놓고 실험을 계속했다. 또 한편으로는 염초를 굽는 중국인 기술자를 만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기도 했다.

무선은 시간만 나면 중국 상선들이 정박하는 예성강가를 배회하였다. 그러다가 중국인만 만나면 염초굽는 기술자를 찾았다.

이제 무선도 머리가 희끗희끗 반백이 되고 얼굴엔 주름살이 많아졌다. 어느 날 그런 무선의 얼굴이 활짝 퍼졌다. 우왕 원년. 그러니까 무선의 나이 50세가 될 때였다. 중국 상선에서 염초만드는 기술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중국인은 이 원이란 중국 강남 사람이었다.

무선은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원

에게 온갖 대접을 다 베풀었다. 처음에는 무선이 살던 마을에 머물러 살게 한 뒤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는 등의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 다음 무선은 아예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한 뒤, 자신의 뜻을 밝혔다. 이 원은 무선의 진지한 연구열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무선이 화약 제조법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순수한 뜻에 감동했소. 지금 곧 화약 제조술을 가르쳐 드리겠소.”

이 원은 무선의 집에 기거한 지 수십 일만에 자신이 알고있던 화약 제조법을 털어 놓았다.

무선은 곧 그가 알려 준대로 화약을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는 왜구들을 격퇴할 수 있게 됐어. 이 화약만 가지고 있으면 말일세.”

무선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

험을 한 뒤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 • 화약 병기의 위력

무선은 조정에 화약을 제조하기 위한 화통도감을 설치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은 무선의 건의를 묵살하며 비웃었다.

“화약을 만들어 왜구를 섬멸하겠다고? 조정 살림도 어려운 판국에 어디서 경비를 충당하려고…”

하긴 조정의 재정도 어려운 처지였다. 왜구들 때문이었다.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곡물을 탈취당하기도 하였고, 세곡을 실어나르는 조운선이란 배마저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다.

그래도 무선은 좌절하지 않았다. 화통도감의 설치를 계속 건의하였고, 마침내는 조정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냈다. 그때가 우왕 3년, 무선은 화통도감에서 화약을 제조하는 책임관이 되었다. 이때 무선은 대장군, 이장군, 삼장군, 육화, 석포, 화포, 신포, 화통, 화전, 철령

전, 피령전, 질려포, 철탄자, 천산, 오룡전, 유평화, 주화, 축전화 등 18종의 화약 병기를 제조하였다고 한다. 비로소 조정 대신들은 그가 만든 최신 병기들의 위력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우왕 6년(1380) 가을이었다. 왜구들은 5백여척의 배의 닻을 진포에 내렸다. 그들의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라·충청도의 곡물을 노략질하는 것이었다. 진포는 지금의 군산, 장항포 등의 하구 일대를 일컫는데, 그 배후에 우리 나라의 드넓은 곡창지대를 갖고 있어 언제나 왜구들의 길목이 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심덕부를 도원수, 나세를 상원수로 하여 백여척의 배에다 무선이 제조한 화약 병기를 가득 싣고 전투에 임하게 하였다.

무선은 기도하듯 그가 만든 병기에 손수 불을 붙였다. 바로 병기의 위력이 나타났다. 우리 수군들은 함성을 터뜨렸다. 적선에 불이 붙어 그 불길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왜구들은 도망칠 수 없었다. 5백여척의 배를 해상의 요새처럼 꼭꼭 결박해두었기 때문이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한 척의 배도 남김 없이 다 타버리고 배에 남아 있던 왜구들은 거의가 물귀신이 되어 버렸다. 실로 통쾌한 일격이었다.

승전보는 곧 조정에도 알려졌다. 우왕은 기쁜 나머지 대신들을 모아 놓고 진포의 승전을 축하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을 세운 장수들을 개성으로 불러들여 금, 은, 비단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때 최무선은 ‘순성익찬공신 광정대부 문하부사 삼중대광 영성군’이란 높은 벼슬과 작호를 받았다. ㉞

